

한국틴스타 소식지 통권 제55호

꿈 사랑*

- 02 들어가는 글 _ 틴스타 교사의 시노달리따스 _ 양주열 신부
- 04 지면강좌 _ 혼인과 동성결합에 대한 질문과 대답 _ 손호빈 신부
- 08 2021 전국 교사모임 및 재교육 스케치
- 12 틴스타 지금 _ 지역소식, 수업현장, 한국틴스타 소식, 후원자 명단

12
2021

틴스타 교사의 시노달리따스

양주열 베드로 신부
(한국틴스타 대표)

*2021년 한국틴스타 전국교사모임 및 재교육 강의에서 발췌

교황님께서서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시노드에 초대하셨습니다.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여정으로, 전 세계 주교님들이 교회의 현안을 논의하시는 회의인데, 이번 회의의 주제가 바로 시노달리따스, 즉 함께 걷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주교님들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가운데 식별하며 결정할 것입니다. 그 결정에 대해 동반하면서 다시 함께 걸을 것입니다. 함께 만나고 경청하고 식별하고 동반하는 것이 시노드입니다.



이번 재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교회가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과정 안에서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틴스타 교사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동반할지 다시 함께 걷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재교육 과정 안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단죄하거나 때로는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변화를 요구하지만 비난은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안에서 참된 가치, 특별히 우리가 나누었던 참된 사랑의 가치가 무엇 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인격 존재인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혼인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부모가 되는 여정 자체가 인격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이 안에는 인간의 성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적 특성 안에서 인격의 완성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욕구를 넘어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각자가 처한 다양한 조건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성향이거나 삶의 역사 안에서 겪었던 어려움의 결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온전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은 공감과 식별

가톨릭 교회의 구원은 공동체적입니다. 이성애자만 구원 받고 동성애자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예수님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깊은 공감과 이해로 그들을 동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것은, 진리와 사랑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공감 할 것과 지켜야 할 가치를 식별해야 합니다. 실천은 사람의 몫이지만 기준은 하느님이십니다. 특별히 거절되고 비난받으며 참된 사랑의 가치를 잃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베드로와 고르넬리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고르넬리오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번 시노드에서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르넬리오는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열심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꿈에 성령이 나타나서는 사람들을 베드로한테 보내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낮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내려오고 성령이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시를 봅니다. 고르넬리오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고르넬리오의 집에 간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물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설명하고 물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당시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걸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성령의 활동, 제자 베드로의 활동, 그리고 이방인 고르넬리오로 대표되는 백성들입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 셋이 함께 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만약 성령이 없다면, 인간들끼리의 정치적인 결합이 됩니다. 만약 고르넬리오가 없으면 성령과 사도들의 자기 참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없다면, 고르넬리오는 성령이 하는 방언의 내용을 알아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치, 틴스타 교사, 동성에 성향이 있거나 동성에 행위를 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틴스타 교사가 없이 교회가 이들에게 직접 말한다면 이들은 교회의 가치를 알아 듣지 못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사람들이 없다면 틴스타 교사는 자기 참조가 될 것이고, 성령의 도움 없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했던 이 과정도 시노드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걷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



또 하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붙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돌을 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상처받은 사람과 더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이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놓고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상처가 더 컸다는 것과, 그 때문에 죄인을 상처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 죄의 원인이 상처였다고 이해한다면, 그 죄는 단죄해서 끝나지 않고 치유해야 할 과정이 됩니다. 삶의 경륜과 상처는 공감과 연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공감하고 신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키던 것이 옳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단죄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여인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민과 동시에 그들이 지키던 율법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틴스타 교사에게는 동성애와 관련한 여러 상황들에서 깊이 공감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동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새로운

혼인과 동성결합에 대한 질문과 대답

손호빈 디오니시오 신부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동성 간 결합에 관한 합법화, 즉 '동성 결합에 대한 법적 권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동성 결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혼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혼인의 의미와 목적, 개인과 가정, 사회에 대한 혼인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성과 신앙을 토대로 동성 결합의 합법화를 바라볼 때 우리는 동성 결합이 숨기려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조 때부터 이어져 내려 온 진리를 바탕으로 혼인과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몇가지 물음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혼인이란 무엇인가요?

혼인은 창조 질서와 함께 창조주 하느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 결합을 통해, 혼인 서약과 함께, 혼인 유대 안에서 일생 서로에게 충실하고, 배타적인 결합을 통해 사랑과 생명의 친밀한 공동체에 함께 참여함과 동시에 부부는 서로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들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자녀를 책임있게 양육하라는 고귀한 성소입니다. 혼인 성소는 인간 영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창조되는 순간부터 하느님 닮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사랑의 기쁨, 208항 참조).

(3쪽에서 계속) 시선이 필요합니다. 단죄하는 일도 옳은 일이고 깊은 연민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일도 또 하나의 길입니다. 하지만 제3의 길은 결국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희망하면서 연민을 넘어서 하느님다운 인간의 본래의 품위들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리 놓기'라는 책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존중과 공감과 함께 민감성을 이야기합니다. 민감성이라는 것은 깊이 공감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킬 것을 지키는 섬세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 전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민감성을 가지고 밀어내거나 배척하지 않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지켜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임이 마무리 된 지금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적 특성을 지닌 인간 존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격적인 성숙과 사랑의 완성을 통해 하느님다움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다른 성적 특성과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도 함께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동반하는 것이 바로 틴스타 교사의 시노드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올 한해 다방면에서 동반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에도 함께 가는 길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지만 동등합니다(equal). 또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며, 이는 단순히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적인 관계를 내포합니다. 성적 차이를 포함한 이 상호보완성은 “처음부터” 창조주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환기시켜주고, 서로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자녀출산에 항상 열려있는 사랑의 결합으로 서로를 끌어당깁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02- 1605항 참조). 이런 혼인에 관한 진리는 초자연적 신비를 담고 있는 자연 질서(자연법)로 존재하며, 이는 인간 이성의 빛에 의해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인과 그 ‘신비’, 혼인의 제정과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의미, 그 기원과 목적, 구원의 역사를 통한 혼인의 다양한 실현, 죄로 생긴 혼인의 어려움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1602항).

2. 그리스도교는 혼인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혼인은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당신 닮은 모습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순간 세워졌습니다(창세 1.27 참조). 창조주 하느님께서 남자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첫 혼인을 맺어주셨습니다(창세 2.24). 이 때 남자는 여자를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로 인식하며, 자신과 동등한 인격으로 바라봤습니다(창세 2.23). 또한 창조주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고 첫 강복을 내려주셨습니다(창세 1.28).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이 가르침을 되새겨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된다.”(마르 10.6-9)

방금 언급한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혼인에 관한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줍니다. 혼인은 부부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에게 자신을 오롯이(독점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배우자에게) 내어주는 친밀한 결합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해 자신의 성적인 차원과 더불어 전인적 차원을 선물로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느님과 협력하며, 그분의 도움과 함께 자녀를 책임있게 양육하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혼인은 창조를 위한 신적 계획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본성적인) 제도이며 신성한 결합입니다(인간생명, 8항 참조). 교회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혼인은 성사이며, 구원의 실재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을 교회를 향한 당신 사랑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의 혼인적 관계를 ‘큰 신비’로 표현했습니다(에페 5.25-33 참조). 이는 세상이 성사적 혼인을 통해 인간적 조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실하고 창조적이며 충만한 그리고 자기 비움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의 참된 혼인은 부부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충실함, 친밀한 애정, 선물로 받아들인 자녀출산과 양육, 자애로움, 헌신과 희생, 용서 그리고 치유로 표현되는 그들의 사랑은 하느님 사랑을 자신들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가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그리스도교적 의미들은 혼인적 결합이 지닌 인간적 가치들을 확인해주고 강화시켜줍니다(1612-1617, 1641-1642항 참조).

3. 왜 혼인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가능한가요?

인간 섹슈얼리티의 자연적 구조는 남자와 여자가 인간 생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상호보완적 ‘협력자’가 되도록 합니다. 오직 남녀의 결합만이 혼인에 관한 하느님의 계획인 성적 상호보완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영

속적이며 독점적인 계약은 인간 생명을 전달하며, 남편과 아내의 유대를 쌓기 위해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성적 사랑의 표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1639-1640항 참조).

혼인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자신의 인격 안에서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줍니다(1643항 참조). 그들은 인간 존재로서 동등하지만 남자와 여자로서 다르며, 이런 자연적(본성적) 차이를 통해 서로를 충만하게 완성시켜줍니다. 이 고유한 상호보완성은 혼인의 핵심인 혼인 유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4. 왜 동성 결합이 혼인과 동등하지 않나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성결합은 혼인의 본질(natura)과 모순됩니다. 동성결합은 남성과 여성의 자연적 상호보완성을 토대로 하지 않습니다. 동성결합은 하느님의 새로운 생명의 창조활동에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합은 성적 결합의 자연적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동성결합의 인격들은 참된 혼인적 일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성 결합을 혼인과 동일한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5.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점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혼인이 왜 그렇게 사회에 중요한가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양한 문화와 사회 구조 그리고 사고방식으로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더라도, 혼인은 가정의 기초였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혼인은 공적인 의미를 지닌 인격적 관계입니다.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위한 근본적인 선물로서 사회에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며, 평생동안 서로의 선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서약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혼인의 관계 안에 자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안정적이며 애정어린 관계를 토대로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혼인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고유하고 본질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법 안에서도 이 관계가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민법은 특히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교육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동성결합에게 혼인의 법적 권한을 주는 것은 공개적으로 동성애 행위를 공식 승인하는 것이며,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만약 혼인이 다른 관계들과 동등한 관계로 재정립될 경우, 혼인의 가치는 평가 절하되고 그 의미는 약화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양한 압력으로 약화된 이 기본 제도는 이미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6.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건가요?

동성결합에 법적 권한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혼인과 동성결합이 본질적으로 다른 실재이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의는 사회가 거부하길 요구합니다. 성적관계 안에서 전적이며 독점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는 혼인에 관한 하느님의 계획을 지키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도덕적 진실을 증언하면서,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해 모두 부도덕하고 말해야 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는 동성애자들을 “존중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2358항)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교회는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에서' 정결한 우정의 관계를 맺어나가길 독려합니다. “정결의 덕은 우정으로 피어난다. 정결의 덕은 우리를 당신의 벗으로 선택하시고, 당신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하느님 이신 당신의 신분에 참여하게 하신 그분을 어떻게 따르고 본받을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 정결은 불멸을 약속해

주는 것이다. 정결은 특히 이웃과 나누는 우정으로 표현된다. 동성이나 이성 사이에서 발전된 우정은 모두에게 큰 선익을 준다. 우정은 영적인 친교로 발전한다.”(2347쪽)

7. 동성 간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혼인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동일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국가는 혼인에 뿌리를 둔 가정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혼인한 부부들에게 권리와 혜택을 정당하게 줄 수 있으며, 그 권리와 혜택을 다른 결합에 계까지 확대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번영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안정과 번영에 달려 있습니다. 혼인과 관련된 혜택을 포함한 법적 인정은 그저 개인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안녕을 위해 남편과 아내가 만들어가는 사회적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혼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의미에 올바르게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혼인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동성 결합을 한 사람들은 혼인 인정과 상관없이 ‘동성 간 조합’의 형식으로 일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동성 결합을 한 사람들끼리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아프거나 수술을 해야 할 때 자신이 지명한 사람을 보호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8. 혼인에 관한 진리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적이거나 사적인 영역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 사이에 분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교회 가르침을 토대로 올바르게 형성된 양심과 함께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 안에서 올바른 양심의 공동체로 자리해야 합니다. 사회의 안녕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목소리를 내고 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와 올바른 이성의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있는 정치참여는 하나의 미덕이며,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는 혼인의 의미와 가치를 지키고 혼인과 동등한 권한을 요구하는 동성결합의 합법화를 막아야 하는 시급한 오늘날 더욱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상호 충실함과 생명과 사랑을 서로에게 전적으로 내어주기로 서약한 부부들이야말로 혼인을 위한 최고의 변호사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모범이며, 혼인에 관한 존엄성과 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줘야 하는 ‘첫번째 교사’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정을 오래된 표현에 따라 “가정 교회(교회현장, 11쪽)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가정을 ‘하느님의 가정’이라 여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성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기를 원하셨다.”(1655쪽). 창조주 하느님께서 ‘온 가족이’ 구원되기를 바라십니다. 나아가 건강한 가정의 부부들이 교회로부터 받은 자신들의 은총과 선물을 다른 ‘가정 교회’를 위해 내어주며 동반해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사목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동반해 줄 수 있으며, 자신들이 맺은 서약을 보다 견고히 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성찬례를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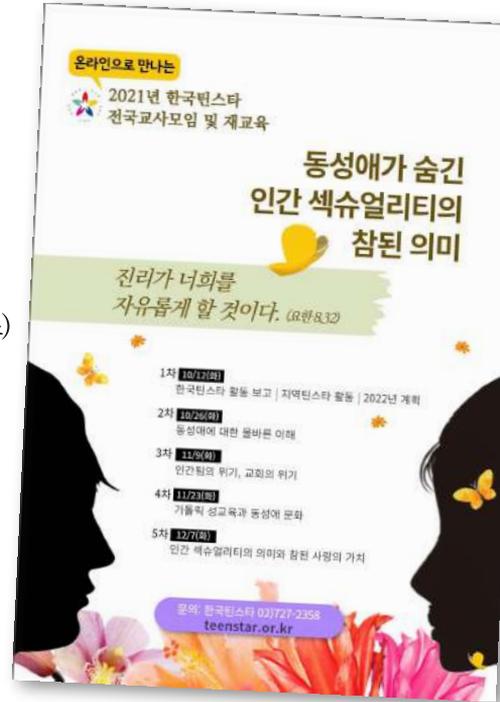
나오며

혼인은 인간과 사회 제도의 기초입니다. 혼인은 민법과 교회법에 의해 규제되지만, 그렇다고 교회나 국가가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제정자는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나 국가가 혼인이 지닌 근원적 의미와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본성과 목적을 지닌 혼인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의해 가능하며, 법은 그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 어떤 관계와 달리 혼인은 사회의 공동선에 유일무이하면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여를 합니다. 특별히 자녀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인격적 일치하는 평생동안 자신들과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위한 최고선(Bonum)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할 선물입니다.

동성애가 숨긴 인간 섹슈얼리티의 참된 의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 8:33 참조)

작년 전국교사모임에서의 풀리지 않은 의문점에서 시작한 2021년 전국교사모임 및 재교육은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대해 교사들이 분명하게 알고, 동성애 성향이 있거나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동반할 것인지 5차에 걸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차 10월 12일

한국틴스타 활동보고

한국틴스타 대표 양주열 신부님의 환영사로 5차에 걸친 전국교사모임 및 재교육의 막이 올랐습니다. 멀리서 참석하신 잠비아의 김종용 신부님과 올리비아의 정호영 수녀님도 반갑습니다.



지역 틴스타와 한국 틴스타의 1년 활동에 대한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한 모든 선생님 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왼쪽 QR코드를 스캔하면 2021년 한국틴스타의 활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10월 26일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2차 모임은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이창영 신부님의 진행과 12년 넘게 동성애자 상담 경험을 기반으로 경북전문대학 간호학과 임견주 교수님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던 동성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동성애자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제3의 길>의 일부를 임견주 교수님의 인터뷰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걸어야 할 제3의길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면 영화 <제3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3차와 4차 모임은 로마 교황청립 혼인과 가정 연구를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대학원에서 공부하신 서울대교구 손호빈 신부님과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의 이윤이 수녀님을 모시고 동성애를 비롯하여 성과 혼인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입장을 자세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옥같은 강의를 준비해주신 신부님과 수녀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차 11월 9일

인간됨의 위기, 교회의 위기

3차 모임은 창조주 하느님의 창조 계획과 그분이 창조하신 객관적인 질서가 무엇이기에 동성혼인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됨의 위기가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새겨진 하느님의 질서를 깨닫고 전적인 자기 증여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왼쪽 QR코드를 스캔하면 셋째날 강의 중간 5분 휴식시간에 함께 들었던 '잇쉬가 잇사에게'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4차 11월 23일

가톨릭 성교육과 동성애문화

4차 모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성애 문화를 짚어보고, 그 안에서 간과하기 쉬운 가치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가톨릭 성교육을 담당하는 틴스타 교사로서, 사랑과 인권,, 그리고 은총의 의미에 관해 깊이 성찰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끝에 소개해주신 정결과 우정으로 동성애자와 동성애자 가족들을 동반하는 가톨릭 단체 Courage에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https://couragerc.org>





1차 10월 12일
인간 섹슈얼리티의 의미와
참된 사랑의 가치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모임 나눔 기록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과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동반할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해 보았습니다. 틴스타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체험과 그 안에서 발견한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발견해 낼 수 있었습니다.

체험을 성찰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여 새로운 실천으로 나아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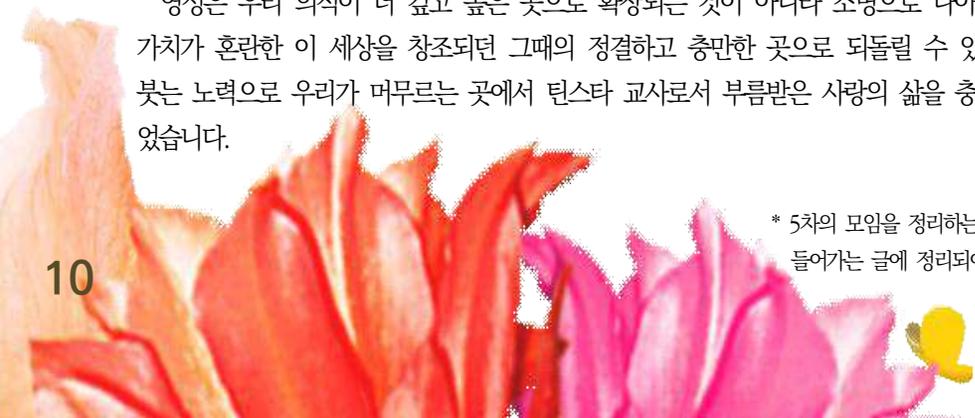
다섯째 모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소모임 나눔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틴스타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몸과 감정, 성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찾을 수 있었으며, 생식력 자각의 힘은 자신과 하느님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밑거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돌봄이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나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아내, 그리고 함께 일하는 다른 이에 대한 이해와 돌봄을 가능하게 하고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체험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교사로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작은 힘이 이 학생들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는 공통된 체험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와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이며, 우리를 선하게 쓰시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한다면 쉽게 포기하겠지만, 함께 모인 모든 선생님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걸어갈 수 있다는 힘과 믿음을 주었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하느님의 시선으로의 회복, 진리와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 이해와 돌봄과 존중, 동반과 이웃 사랑과 기다림 등 수많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어려운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한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직면한 또 다른 동반자인 동성애자들을 대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성은 우리 의식이 더 깊고 높은 곳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처럼, 성에 대한 가치가 혼란한 이 세상을 창조되던 그때의 정결하고 충만한 곳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붓는 노력으로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서 틴스타 교사로서 부름받은 사랑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5차의 모임을 정리하는 양주열 신부님의 강의는 이번호 소식이 들어가는 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틴스타 • 2021.10.12~12.7

전국모임 및 재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면 후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주신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동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잘 알려주고, 식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동성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성적 남용도 함께 이야기되어야 교회의 가르침이 호소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주신 질서, 성을 잘 배우고 이해하면 동성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몸은 인격의 성사이며 성행위는 인격의 표현이다. 성의 상이성과 상호보완성에 대한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성은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신부님의 좋은 강의에 은혜가 넘칩니다.

바다의 등대처럼 세상에 꾸준하게 빛을 계속 비추며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내 삶을 통해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동성애에게 느끼는 우정을 동성애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오해겠네요.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객관적인 무질서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 객관적이라는 뜻을 오늘에서야 정확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소중한 강의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선택할 때, 그 이후의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루카 12,31)"

인간 존엄성과 혼인은 법이나 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질서 중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틴스타 성교육의 차별화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요즘 아이들은 이성간의 사랑과 동성간의 사랑이 다르지 않다고 표현하고, 저도 그 의견에 어느정도 동조를 하고 있었음을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의 차이를 청소년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혼인은 지속적이고 전적인 결합이며, 실존적 신분이 바뀌는 전적인 부부에 서약을 실현하는 것으로, 혼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현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사회가 단어 안에 이념을 어떻게 품고 의도적으로 인류를 이끌어가는 커튼을 걷어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광 주

- 6~8월 광주교구 정기간행문 틴스타 소개
- 8.31 가톨릭평화방송 '상상속으로' 틴스타 소개
- 12.20 송년미사 및 월례회의

대 구

- 7.10 동촌 성당 자모회 소개특강
- 7.13 대건중학교 1,2학년 전체 소개특강
- 5.13~7.8 9~11세 어린이를 위한 교안 연구
- 8.12~11. 12~13세 어린이를 위한 교안 연구
- 10.29 월례회의
- 10.30 범물성당 자모회 소개특강
- 11.4,19 황금중학교 전교생 소개특강
- 11.17 대건중학교 3학년 전체 소개특강
- 12.19 대구틴스타 총회

4대리구 포항

- 9월 비대면 월례회의

부 산

- 12.4 민락 성당 자모회 소개특강

서 울

- 생명위원회 웹진 <생명을 위하여> 1~12월 틴스타 기고
- 10.12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참가
- 10.30 연희동 성당 자모회,교사회 소개특강
- 12.20 월례회의: 기존 동서울, 중서울, 서서울 세 지역으로 활동하던 서울틴스타는 동서울 지역을 없애고 경기남부, 북부지역을 추가 편성하여 서울지역+경기지역으로 개편하고, 함께 활동할 예정입니다.

인 천

- 7.10 제1회 인천 틴스타 교사의 날
- 매월 둘째 목요일 월모임: <인간생명> 책 나눔
- 12.16 송년 미사



▲ 제1회 인천 틴스타 교사의 날



▲ 부산 민락 성당 자모회 소개특강



▲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참가



▲ 서울 연희동성당 자모회 소개특강

2021 하반기 한국틴스타 수업현장			
분류	지역	현장명	담당교사
학교	대구	산자연중학교(소년/소녀)	박세원, 전현정 선생
		효성여고(여성)	배수경 선생
	인천	소명여자중학교(소녀)	임승빈, 황윤정, 우향숙, 김지윤 선생
		인천 가톨릭대학교(성인)	이창영 신부, 조정옥 선생
종교 단체	대구	감삼성당(소년/소녀)	이인석, 정대현, 김외택 선생
		동촌성당(성인)	홍경희, 배승은 선생
		범물성당(성인)	배승은, 배수경 선생
	울산	병영성당(어린이)	김도희, 하영애 선생
기관	서울	학생의 집(어린이)	원지은 선생
기타	온라인	성인을 위한 틴스타	하영애 선생
	구미김천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유경진 선생



▲ 대구 효성여자고등학교, 여성을 위한 틴스타



▲ 183차 인천 교사양성워크숍



▲ 구미김천팀,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 제1회 부모세미나

생명 교육

- 12.21 청주 트르와 사랑의 성모 수녀회 새생명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직원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 주제: 생명을 낳고, 성장시키고, 열매맺게 하는 사람들
 - 강사: 김혜정, 조정옥 선생
- 12.28 몽골리아(Mongolia)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소개 모임: 이성운 신부, 이창영 신부

교사양성 워크숍

- 179차 전주교구 온라인워크숍(12주) 2021.6.16.~9.1
- 180차 청년을 위한 온라인워크숍(12주) 2021.7.19.~10.4
- 181차 온라인워크숍(12주) 2021.9.1.~11.17
- 182차 예수성심수녀회 온라인워크숍(12주) 2021.9.6~11.22
- 183차 인천워크숍 2021.10.30~31, 11.6~7 인천교구 사회사목센터
- 184차 온라인워크숍(12주) 2022.1.5.~3.30
- 185차 서울워크숍(12주) 2021.3월~5월 명동 영성센터



출판/영상

- 부부가 함께하는 끝기도 <오직 당신만을 영원히> 발간. 손호빈 신부 저
- <당신의 특별한 싸인(Sign)> 애니메이션 제작
-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책임감> 제작
- <남녀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보완
 - * 교육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서울대학교 생명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틴스타 친구 여러분,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지연됐던 국제 회의를 ZOOM을 통해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틴스타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들은 젠더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성교육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생식력 언어에 대한 경험적 학습을 통해 틴스타는 자신의 생물학적 몸을 초월할 수 있다는 생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중 하나가 되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삶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롭고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클라우스

[2021년 후원자 명단]

강경희 강규환 강나원 강명선 강병옥 강보심 강서은 강성실
 강성희 강수진 강신화 강예은 강정애 강정혜 강진숙 고정신
 고경심 고금리 고미영 고병선 고은형 고정희 고종은 고행자
 고혜선 공수민 광경옥 광현선 구민숙 권선주 권소영 권옥경
 권원정 권윤주 권주연 권희봉 기현도 김 훈 김경섭 김경수
 김경희 김관수 김귀임 김금남 김기록 김기환 김대성 김말순
 김미숙 김미영 김미정 김미진 김미하 김민지 김봉주 김삼례
 김삼미 김선미 김선미 김선영 김선옥 김선이 김선자 김선자
 김선주 김선화 김선희 김성도 김성순 김성언 김성희 김소영
 김송연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 김수영 김수정 김수진 김신정
 김애경 김애경 김여옥 김영두 김영란 김영수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주 김영진 김영혜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용주
 김윤경 김윤정 김윤혜 김은실 김인순 김재관 김재림 김정미
 김정선 김정숙 김정숙 김정은 김정은 김정임 김종후 김중현
 김지선 김창남 김춘태 김충경 김탄렬 김태순 김태영 김하영
 김한식 김한신 김해옥 김해은 김향란 김향숙 김현경 김현숙
 김현순 김형일 김혜선 김혜정 김화영 김효정 김희옥 김희정
 나영훈 남길용 남용귀 남청림 남향오 노경자 노정순 도복순
 류경혜 류기운 모철완 민송희 민혜원 박 석 박경단 박규식
 박기웅 박도연 박미경 박미정 박미화 박민계 박병남 박봉자
 박상옥 박선영 박선은 박선희 박수진 박신규 박신안 박영신
 박영자 박옥란 박원기 박은영 박은정 박은호 박은화 박인서
 박인석 박재석 박 정 박정남 박정숙 박정아 박정우 박종천
 박찬숙 박 철 박해랑 박현순 박현화 박희중 방경준 방미경
 방윤지 방정희 방춘자 배안나 배연희 배윤주 배은주 배정은
 배현미 백미경 백민주 백수현 백현주 변미선 사준우 서미영
 서영에 서은지 서춘애 석화현 성남숙 성미희 성양경 성진우
 손경숙 손광옥 손산열 손승현 송미령 송미숙 송선경 송은희
 송지연 송채영 송현석 신경미 신경숙 신경승 신동희 신미영
 심부덕 심수연 심은남 안경덕 안경렬 안남주 안수경 안승관
 안인선 안인숙 양기선 양세홍 양영희 양주열 연은주 오경애
 오경택 오대석 오상희 오세민 오세옥 오수동 오연수 오요한
 오은주 오인석 우미란 위선희 유기상 유송자 유승상 유영규
 유자경 유재옥 유정열 유형옥 율행선 윤경희 윤계현 윤광희
 윤규현 윤미향 윤영준 윤오선 윤옥순 윤종섭 윤지은 윤 진
 윤화숙 은 주 이경림 이경숙 이경원 이경자 이경화 이경화
 이근주 이금자 이동준 이명희 이명희 이문환 이미경 이미경
 이미숙 이미희 이민옥 이병옥 이보배 이상숙 이상순 이상옥
 이상호 이선화 이설희 이성희 이수경 이수련 이수진 이수호
 이숙기 이순례 이순희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영희 이우석
 이유정 이윤우 이은경 이은경 이은비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은정 이임재 이정미 이정숙 이정순 이정은 이정은 이정자
 이정현 이정화 이정화 이정희 이주경 이지영 이지영 이지은
 이지향 이철우 이하나 이현선 이형운 이호욱 이희정 이효순
 이훈정 이희경 이희정 이희정 임건주 임광희 임미나 임미라
 임수경 임해원 임희정 장경희 장병길 장성옥 장순덕 장승혁

장영록 장유리 장지숙 장혜경 장희선 전춘금 정경선 정광미
 정미영 정병모 정선주 정성희 정성희 정양숙 정영미 정재명
 정재우 정주연 정춘고 정하선 정해인 정해정 정형민 정화주
 조경득 조규호 조미경 조미선 조미영 조미희 조병호 조복희
 조성희 조영선 조영종 조용운 조원준 조은아 조화수 조희수
 지원호 진성옥 차형주 차효숙 채도근 최 훈 최도환 최명숙
 최병혜 최수녕 최승화 최연수 최영희 최윤서 최재분 최재영
 최정혜 최춘단 최현숙 최혜원 편성미 하경옥 하경희 하영애
 한경숙 한승덕 한승희 한혜숙 한혜정 한희석 허동(주)메탈153
 허성학 허세만 허옥희 허인화 홍미숙 홍미영 홍선자 홍성지
 홍성흙 홍성희 홍영숙 홍은미 홍종욱 홍호선 황금화 황문숙
 황보운 황유숙 황지희

[한국틴스타를 위한 단체 후원]

광주 장성성당, 대구틴스타, 수원교구1대리구, 인천틴스타, 생명
 위원회, 하비에르국제학교

[대구틴스타를 위한 단체 후원]

김천 성의여고, 김천 어린이팀, 봉덕성당 주일학교, 감삼성당 주
 일학교, 수지의 집, 툇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건중학교, 황
 금중학교, SOS어린이마을,

[서울틴스타를 위한 개인후원 및 단체 후원]

서울틴스타 후원금 계좌: 우리은행 1005-602-944253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김영숙, 김혜정, 이경선, 정문호, 양주열, 대전기톨릭대학교, 연
 흥동 성당, 장지동 성당

[인천틴스타를 위한 개인후원 및 단체 후원]

인천틴스타 후원금 계좌: 신한 131-010-789841
 인천교구 생명본부

강석형, 김민정, 박남훈, 박인서, 백윤옥, 변다영, 변정임, 서덕
 진, 소훈아, 안지혜, 양경원, 양승자, 오명자, 오미선, 오세원,
 원지은, 유재분, 윤재숙, 윤혜숙, 이병주, 이정림, 이정림, 정현
 미, 천예림, 부천 소명여자중학교, 인천 대건고등학교, 인천교구
 가정사목부, 인천기톨릭대학교 신학대학

*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매해 1월 가정으로 발송되며,
 국제적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후원자님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CMS 신청
 서를 작성하시거나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우리은행1005-100-998647 (예금주:한국틴스타)



 Teen STAR

발행일 2021년 12월 (통권 55호 발행)
창간호 2004년 10월
발행처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https://teenstar.or.kr>
주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사무동 401호(한국틴스타)
E-mail kteenstar@hanmail.net
전화 02)727-2357~9 / 02)755-2629
팩스 02)727-2243

